

아태지역 개발도상국과의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을 통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성주류화 및 선진화 방안

수행과제명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II) :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

과제책임자 • 김은경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아태지역 개발도상국과의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을 통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성주류화 및 선진화 방안*

수행과제명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II):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

과제책임자  김은경 연구위원

 Tel: 02-3156-7107

 e-mail: kekkekek@kwdimail.re.kr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젠더분야 사업의 증가 및 아태지역 주요 협력대상국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정책 제도적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ODA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다차년도 연구사업임. 2011년도부터 캄보디아·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올해로 3차년도를 맞는 본 연구사업을 통해 신규 협력국가인 미얀마와 베트남의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으며, 협력국가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현지 여성정책 수요에 비교분석이 이루어짐. 이와 더불어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와 베트남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역량강화 워크숍의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은경·이수연·장은하·김정수·곽서희·박연선(2013).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II):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과와, 3차년도를 맞는 시점에서 과거 초청 워크숍에 참석했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평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을 위한 논리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컨설팅을 통한 여성대상 개발사업의 발굴 및 개도국과의 네트워크 축적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배경 및 문제점

- 2000년에 채택된 UN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도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강화와 모성보건 증진이 8대 개발목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최근,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Post-2015 MDGs 의제발굴과 목표설정 방안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통합프레임워크에서 주요 개발의제로서 성불평등을 존속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소들의 변화 유도 및 여성의 권익보장 및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역시 개발과 여성이슈에 주목하며, 양성평등 의제화를 위한 성평등 지침서 발간, 양성평등네트워크(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GENDERNET)의 개최, 젠더마커(Gender Marker)의 도입 등을 통해 개발원조의 성주류화를 위해 노력해 옴.
-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실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2012년 동료검토(Peer Review)에서 한국은 성주류화 통합방안 및 가이드라인구축과 ODA 내 관련 지출액 비중 증대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음. 따라서 MDGs 달성에 기여하고 OECD DAC 멤버 선진공여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한국은 ODA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성주류화 기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한국의 ODA와 젠더를 연계하기 위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젠더분야 사업 증가 및 주요 협력대상국의 여성정책 제도적 기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ODA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미얀마의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
 - 최근, 미얀마 정부는 여성발전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13-2022, NSPAW)을 발표하여 베이징 행동강령과 CEDAW에서 제시한 12개 우선순위 분야 별로 중점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미얀마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로서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MSWRR)내의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SW)이 여성정책 수립 및 실행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법무처 차원에서 여성정책 초안 수립 및 이행방안 모색, 정부와 비정부기구 간 업무 조정을 위해 조직된 미얀마여성위원회(Myanmar National Committee for Women's Affairs, MNCWA), 이를 이행하는 미얀마여성연맹(Myanmar Women's Affairs Federation, MWAF)이 있음. 또한, 비정부기구로서 젠더 관련 국제기구, 국제 NGO 및 현지 NGO들간 협의체인 Gender Equality Network(GEN) 역시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정책 수립과 이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외 주요 여성단체로서 NGO Gender Group, Women Organization Network(WON) 등이 있음.

- 미얀마 여성지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낮은 수준임(여성 하원의원 6.0%, 상원의원1.8%, 장관급 1명, 차관급 5명). 경제영역에서도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60.5%정도이며, 15세 이상 여성 2/3가 비공식분야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농촌일수록 그 비중이 높으며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존재함. 교육분야의 경우 성인여성 문해율이 개선(90.4%)되고 있으며 초등에서 고등교육까지 남녀 진학률이 비슷하고 대학교육부터는 오히려 여성의 진학률이 높아진다는 점이 특징임. 인권분야의 경우,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5개년 계획이행 등 인신매매 철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행 및 가정폭력 등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방안이 미흡함. 보건분야의 경우, 높은 모성사망률과 영·유아사망률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공중보건 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정부재정대비 보건분야 지출감소 등에 기인함. 이 밖에도 문화적으로 여성권리보장과 동시에 남성우월성을 명시한 불교 관습법 다마타(Dhammathat), 가부장제도 기반의 소수민족 고유 관습법 등은 문화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미얀마 여성정책 현황과 관련해 미얀마 현지 정부의 인적 및 기술적 역량의 부족, 사회 전 영역에 있어서 기본통계 및 기초조사의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열의는 높은 편으로 파악됨.

● 베트남의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

-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국가차원의 여성발전계획을 수립 및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2011-2020 국가양성평등전략(National Strategy on Gender Equality 2011-2020, NSGE)이 이행되고 있음. 그리고 본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2011-2015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 (National Programme on Gender Equality 2011-2015)’은 하부계획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베트남의 여성정책은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내 양성평등부(Department of Gender Equality)가 전담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OCST) 내 가족부(Family Department)가 가정폭력방지철폐법 관련 이행과 정책추진을 전담하고 있음. 법무처차원의 국가여성발전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NCFAW)가 부처간 양성평등 이행점검 및 총리실에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베트남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 VWU)은 공산당대중조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 대상 컴퓨터운영, 원조사업 프로젝트 협력 등 실질적인 여성대상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 베트남 여성지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24.4%),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과 정책결정직내 여성(공산당 내 정치국(Politburo) 여성 2명, 장관 2명)이 적다는 문제가 있음. 여성의 노동 참여율 역시 73.2%에 이르고 있으나, 노동법내 남성과의 정년퇴직연령 차별, 높은 무보수 가족 노동활동 및 불안정, 저임금 고용 여성비율,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 Certificates, LUCs)내 남녀 등록 동등한 권리 보장 조항 삭제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음. 교육에 있어 베트남 여성 문해율, 여학생 순취학률은 일정수준 향상되어 긍정적인 반면 교과서 및 교과과정 내 성 편견문제와 직업관에 있어 성고정관념이 반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인권분야에서, 가정폭력방지철폐법, 인신매매방지철폐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나 법의 실질적 이행과 피해자보호사업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관한 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보건분야의 경우 모성사망률 감소,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비율 증가, 영·유아 사망률 감소 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 하지만 유교문화와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을 받아 출생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남아:여아 비율 112.3).

- 베트남은 양성평등법이나 가정폭력방지철폐법 등 법제정과 더불어 국가양성평등전략과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과 같은 정책프레임워크는 구축되어 있으나, 노동법, 토지법의 개정이나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고려 등 보다 세밀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도 전체적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은 높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정년퇴직문제, 토지사용권 문제 등 여성의 분야별 참여에 있어 수치상의 향상뿐 아니라 질적제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가정폭력방지피해여성 증가, 교과과정 내 성 고정관념, 심각한 출생성비불균형문제 해결 등 법과 현실사이의 간극이 있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인식제고 및 서비스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태지역 협력국가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 비교 분석**

- 본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대상국 여성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정책세미나를 실시해오고 있음. 1차 협력대상국인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1년도에 설문조사와 정책세미나가 각각 실시되었으며, 2차 협력대상국인 미얀마와 베트남의 경우, 2013년에 설문조사 및 정책세미나를 실시하여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설문조사의 문항 구성은 크게 여성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전반의 현황,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제도 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13년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미얀마와 베트남의 여성정책 전문가들 모두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지위가 열악한 분야로 양국 모두 여성의 정치참여와 인권보장을 지적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양국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문화와 관습을 꼽음. 한편, 가장 잘 수립되어 있는 여성 정책으로 미얀마는 여성의 교육 기회, 베트남은 여성문제 전담기구 설치를 응답함. 반면, 정책수

립이 미비한 분야로는 미얀마와 베트남 모두 여성의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를 지적함. 더불어 국제기준과 관련하여, 새천년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양국 모두 빈곤 및 기아퇴치를 1위,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강화를 2위로 선택하였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주력하는 분야로 미얀마는 정책의 성 주류화, 여성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를 선택하였음. 베트남의 경우 여성의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와 여성의 정치 참여로 나타났음.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미얀마의 경우 여성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남.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에 대해서 미얀마는 여성 NGO, 베트남은 정부를 선택하였음. 이는 양국 개발과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임. 미얀마의 군부정권이 오랜 기간 동안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제 및 현지 NGO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반대로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시민사회 발달이 매우 미비하며 정부 주도 발전 경향이 여성 정책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반영됨을 볼 수 있음.
- 미얀마와 베트남의 수요조사 결과를 1차년도 사업대상국인 캄보디아와 비교했을 때, 이 4개국은 종교, 문화, 정치시스템, 경제발전 수준 등에 있어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첫째, 여성지위향상장애요인으로 4개국 모두 차별적 문화와 관습을 압도적 1위로 지적하였음. 둘째,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진된 분야에 대한 응답으로 교육 및 서비스업이 4개국 모두 1, 2위를 앞 다투어 차지하고 있음.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는 분야로는, 정치분야에 미얀마와 인도네시아가, 공직분야에 베트남, 교육서비스분야에 캄보디아가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공직 및 정치분야 진출에 대한 기대를 가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셋째,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잘되어 있는 분야로 여성의 교육기회보장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1위로 선택되었음. 잘 안되어 있는 분야로는 캄보디아를 제외한 세 개의 국가에서 인권 및 폭력 철폐가 1위로 지적되었고, 여성의 정치 참여 또한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세 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적되었음. 넷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한 분야로는 4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인권 보장 및 폭력철폐와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적되었음. 다섯째, 양성평등 실현의 영향력 행위자로는 미얀마를 제외한 3개국에서 모두 국가(정부, 의회, 최고정책결정권자)가 선택됨. 향후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 또한 국가라는 답이 다수를 차지한 것을 볼 때 4개국 모두 양성평등 실현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2013 KWDI 여성정책 역량강화 초청워크숍(Set ans Share Agenda for Gender Equality, SSAGE) 운영과 특징

-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도부터 아태지역 협력대상국 여성정책 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신규 협력대상국인 미얀마와 베트남의 여성정책 2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약 1주간의 워크숍(2013. 9. 9. ~ 9. 13.)을 실시함. 본 워크숍의 목적은 첫째, 협력대상국의 주요 젠더정책 관련 이슈의 파악, 둘째, 협력대상국 여성정책 전문가들의 정책 수립능력 향상, 셋째, 한국 여성정책 수립 과정의 공유, 넷째, 참가자들 간의 지식공유 및 현지 여성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임.
- 미얀마와 베트남 참가자들에 의해 22개의 사업제안서가 개발되었으며, 그 목록은 아래 표와 같음. 참가자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사전 정책이슈 페이퍼를 통해 발견한 현지의 여성정책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워크숍 과정에서 개발한 사업제안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 또한, 자신들의 소속기관의 특성 및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제안서를 발전시키고 있음.

〈표 1〉 워크숍 참가자들이 개발한 젠더사업 목록

선택 분야	국가	사업제목
정치적 역량 강화	미얀마	여성폭력 범죄 감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인식제고 및 사법접근권 개선 사업
		소수민족 여성의 정치적 역량구축 사업
		미얀마 시민사회의 양성평등 및 젠더정의 사업
		정책 애드보커시, 역량구축, 여성정치역량강화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 사업
	베트남	평등한 베트남을 위한 공적 리더십 강화 사업
		베트남 내 젠더기반 폭력의 개념 명확화 및 해결사업
		국가운영에 있어서 여성리더 증가를 위한 성인지예산 정책의 변화를 위한 사업
		은퇴연령의 양성평등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
		양성평등 관련 법·정책 계획 및 이행의 개선을 위한 성인지예산 역량 강화 사업
	여성 경제 교육	미얀마
교육분야 이해관계자를 위한 양성평등 의식 증진 및 성주류화 사업		
베트남		여성폭력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역량구축 사업
		도시지역 비공식부문 도농이주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사회적 보호 개선 사업
		여성의 토지사용권 및 경제적 역량강화에 대한 대중 인식 증진 사업
		베트남 가사노동자 관련 정책의 성주류화 사업
여성 인권 보건	미얀마	HIV/AIDS 법·정책 개혁 검토에 대한 인권 사업
		여성친화 보건센터 설립 사업
		지역정부의 양성평등정책 형성 사업
	베트남	도시지역 청소년 데이트에서의 젠더기반 폭력 예방사업
		여성보건 역량강화 프로그램: 국가 역량구축 및 여성보건 역량강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사업
		가정폭력 예방 관련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 전체 워크숍에 대한 평가는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필요성, 참가자 워크숍에 대한 평가, 총 5개 평가요소로 이루어짐.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4.43이며, 각 문항별 최소 4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본 워크숍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평가요소 중에서 참가자들은 워크숍의 지속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가장 높게 하였고, 그 다음으로 효율성과 효과성, 참가자 워크숍, 적합성 순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본 워크숍의 프로그램 및 운영 면에서 살펴보면 전체 워크숍 평가에서 효과성 요소의 평가가 평균 4.53으로 워크숍이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서 제기된 성공요소에 힘 입은 것으로 보임. 또한, 참가자들은 각 과목 자체보다도 워크숍의 전체적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 2〉 전체 워크숍 평가 결과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소평균 (표준편차)
적합성	워크숍 기간	4.00 (0.72)	4.26 (0.23)
	프로그램	4.57 (0.50)	
	전체 구성요소	4.61 (0.50)	
	· 공통과목 강의 구성요소	4.14 (0.52)	
	· 선택과목 강의 구성요소	4.14 (0.52)	
	· 참가자들의 젠더사업 개발과정 구성요소	4.20 (0.48)	
	· 현장학습 구성요소	4.18 (0.48)	
효율성	프로그램 조직 및 환경 조성	4.50 (0.51)	4.54 (0.11)
	워크숍에 대한 사전 안내	4.43 (0.63)	
	워크숍 기간 중 안내	4.57 (0.50)	
	워크숍 운영진 수	4.68 (0.48)	
효과성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지식의 습득	4.61 (0.50)	4.53 (0.05)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지식의 향후 효용	4.50 (0.64)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소평균 (표준편차)
	현지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개인 역량강화	4.50 (0.51)	
	네트워크 구축	4.50 (0.64)	
지속성	워크숍 추천 의향	4.68 (0.55)	4.71 (0.05)
	워크숍 지속 필요성	4.75 (0.44)	
참가자 워크숍 (사업발굴 과정) 평가	사전 정책이슈 페이퍼 공유를 통한 관심 이슈에 대한 이해	4.36 (0.56)	4.36 (0.11)
	사업제안서 작성 역량강화	4.25 (0.70)	
	사업제안서 발표/공유를 통한 현지 젠더이슈에 대한 이해	4.46 (0.51)	
평균		4.43 (0.54)	

- 워크숍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나은 워크숍의 설계 및 기획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음. 우선, 워크숍 기간 및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평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둘째, 강의위주의 과목 보다는 현장학습 및 간담회에 대한 참가자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한편, 일부 젠더사업 제안서의 경우,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간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향후 각 항목의 작성요령에 대한 강의가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운영될 수 있음. 또한, 참가자들이 워크숍의 지속적인 개최와 더불어 향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한국과의 후속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 하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현지와 우리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젠더분야 개발사업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사업의 중간 성과평가

- 본 사업의 중간 성과평가로 협력국인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역량강화 워크숍이

참가자 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조직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함. 1, 2차 연도에 열렸던 워크숍에 참석했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참가자의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참가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 그리고 여성정책 관련 활동 증가를 포함한 이 세가지 요소를 조작화하여 측정함.

- 워크숍에 사전과 사후 젠더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변화에 전반적인 향상이 있었으며, 특히 워크숍의 다른 참가자들과 네트워크를 지속, 차후에 한국 혹은 여성정책연구원과의 협력 사업을 구상, 그리고 젠더에 관한 이해도 등이 가장 높게 향상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캄보디아 참가자들의 인식변화가 인도네시아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성향을 보인 것도 흥미로운 발견이었음.

〈표 3〉 워크숍 전-후 인식변화 평균값 비교

항목	그룹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전체		
		전	후	후-전 평균	전	후	후-전 평균	전	후	후-전 평균
여성 이슈와 정책에 대한 관심		4.259	4.778	0.519	3.724	4.483	0.759	3.982	4.625	0.643
젠더에 관한 이해도		3.741	4.519	0.778	3.069	4.103	1.034	3.393	4.304	0.911
업무를 젠더적 시각에서 생각		4.296	4.741	0.445	3.517	4.357	0.893	3.893	4.545	0.673
젠더 이슈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		3.048	3.185	0.191	3.250	2.550	-0.727	3.135	2.915	-0.125
업무에서 젠더 관련성을 발견		4.074	4.481	0.407	3.897	4.621	0.724	3.982	4.554	0.571
젠더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동료나 상사와 의논		3.963	4.444	0.481	3.000	3.793	0.793	3.464	4.107	0.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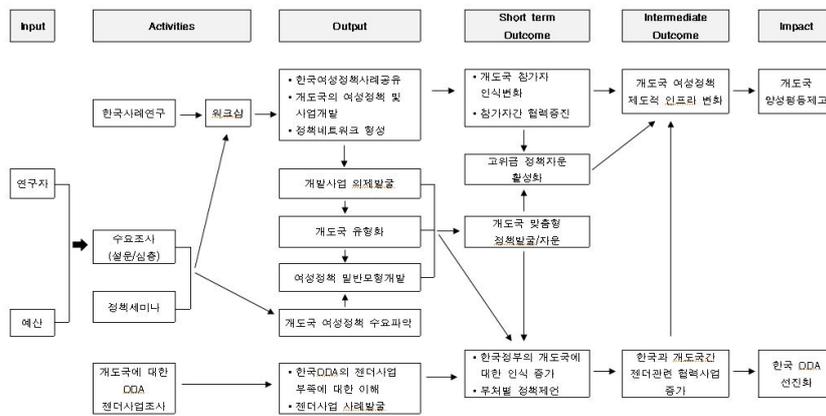
항목	그룹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전체		
		전	후	후-전 평균	전	후	후-전 평균	전	후	후-전 평균
젠더 관련 업무를 추진 하여 시행		3,840	4,440	0,600	2,679	3,655	0,929	3,226	4,019	0,774
여성 이슈와 정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모임을 통해 공부		4,111	4,519	0,408	3,448	4,069	0,621	3,768	4,286	0,518
차후에 한국 혹은 여성 정책연구원과의 협력 사업을 구상		3,360	4,185	0,800	2,241	3,143	0,964	2,759	3,655	0,887
워크숍의 다른 참가자 들과 네트워크를 지속		3,520	4,370	0,840	2,679	3,862	1,143	3,075	4,107	1,000
전체평균		3,921	4,344	0,495	2,967	3,826	0,830	3,500	4,120	0,610

- 워크숍에 사전과 사후 젠더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변화를 그룹별로 비교했을 때 첫째, 워크숍 전 젠더에 관한 의식이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워크숍 이후 젠더 의식에 대한 자기평가는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둘째, 모든 연령대에서 젠더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변화가 향상되었는데 20대와 30대의 젠더 의식 변화가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의식 변화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셋째, 현지워크숍보다는 한국워크숍이 더 높은 향상의 폭을 보였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넷째, 홈페이지 방문 한 집단이 방문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식과 태도의 평균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즉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방문한 참가자들일수록 워크숍 이후 젠더의식에 더욱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워크숍 이후 응답자가 속한 조직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로 젠더 관련 교육훈련 추진과 젠더관련 사업 추진을 들 수 있으며, 상당부분의 응답자가 워크숍 이후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젠

더 관련 변화에 기여한 사례를 주관식 응답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음.

- 워크숍 이후 응답자의 국가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로 젠더 관련법 제정 및 개정과 젠더 관련 국가사업 추진을 들 수 있으며, 과반수에 근접한 응답자가 워크숍 이후 국가적 변화에 개인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응답했고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음. 국가적 변화에 개인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인도네시아가 캄보디아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기여도를 보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인도네시아/캄보디아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답변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워크숍 등의 훈련프로그램, 양국의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여성발전 경험 공유, 수원국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학술적 활동이었고, 캄보디아의 경우 수원국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학술적 활동과 워크숍 등의 훈련프로그램이었음.
 -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에 있어서 워크숍의 성과가 나타남. 첫째,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은 워크숍 이후 전에 비해 모든 참가자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점수를 보였음. 둘째, 워크숍의 결과로 네트워크가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크가 워크숍 전후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는 사실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방문률의 높은 수치를 통해 증명됨. 셋째, 워크숍 이후 응답자가 속한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 일어난 젠더 관련 변화에 대한 응답과 높은 기여도 수치를 통해 워크숍 참가자들이 워크숍 이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성 정책 이슈화에 참여하고 관련 정책 활동을 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사업 논리모델 개발
-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도국의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 한국과 개도국간 젠더협력사업 증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이는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며, 보다 체계적인 연구사업을 위해 변화이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로직을 설계함. 본 연구는 수요조사, 정책세미나, 워크숍,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요와 공급과약, 개발의제 도출이라는 두가지 결과를 얻음. 그리고 단기 성과로는 본 연구사업 참가자의 인식변화, 참가자들간 협력증진, 개도국 맞춤형 정책발굴과 자문, 한국ODA 담당부처별 정책제언을 제시할 수 있음. 덧붙여 본 사업은 고위급정책자문 활성화, 나아가 개도국 여성정책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함.



[그림 1]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로직 모델

3 정책제언

제안1) 컨설팅을 통한 개도국 여성대상 개발사업 발굴

-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통한 한국-개도국 간 협력
 - 최근까지 우리나라 ODA 사업 중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여성교육이나 여성보건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이와 같은 사업

을 요청한 주체는 주로 개도국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인 경우가 많음. 본 연구사업의 협력국가 중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성정책 전담 정부부처가 존재하는 한편, 미얀마의 경우, 사회복지부, 베트남의 경우, 노동부, 문화체육부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정책 전담기구 현황을 감안하여 여성대상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음.

● 기존의 KOICA 사업에 여성관련 프로그램의 통합

- 미얀마에서 현재 시행되거나 추진 중에 있는 KOICA 사업 중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접합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네피도 지역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 사업’의 시행 시,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축적된 ‘여성농업어인 육성 지원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참고하여 농업개발에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음. 둘째, KOICA가 통계자료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성별분리 통계, 국가젠더통계지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미얀마 내 KOICA가 설립한 직원훈련원 사후관리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필요성 등 양성평등 제고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음.
- 베트남에서 현재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KOICA 사업 중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접합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베트남 통계청(GSO)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통계연보 혹은 성별분리통계 조사 및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둘째, KOICA 베트남사무소와 호치민국립정치행정아카데미(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간 협력으로 한국 발전경험 공유 및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수행에 있어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공유 등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전략을 포함시킬 수 있음. 셋째, 한·베 기술학교 직업훈련과정에서 여성대상 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의 실시를 고려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KOICA가 취약지역인 라오까이성, 광찌

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복(HaengBok) 프로그램 내 세부 활동으로 농촌지역 및 소수민족 빈곤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음.

● 경제 및 교육분야 사업에 여성관련 프로그램의 통합

- 본원이 UNESCO 방콕사무소에 위탁하여 진행한 남녀학생의 진로 인식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ODA 사업에 있어서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여학생과 남학생의 서로 다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사의 교육 및 재교육에 있어 성인지 교수법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고, 둘째, 개도국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중·고등학교에 남녀전용 화장실을 건축하는 사업이 제안될 수 있으며, 셋째, 노동시장의 수요조사와 이에 따른 진로지도의 활성화 및 교내 직업 상담센터의 설치 등이 고려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과 노동의 성별분리가 반영된 삽화에 대한 수정 등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한 교과서의 개정작업이 요청됨.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를 통합 사업의 발굴

-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에 대한 체계화작업은 발전경험을 입구적 관점에서 서술한 KSP 모듈화사업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한국의 여성정책 역시 단기간에 법제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도국에 시사 하는바가 큼.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의 개별 사례들은 국가별 사업제안서와 접목시켜 향후 한국정부가 정책 컨설팅을 비롯, 젠더 ODA 사업 발굴을 위한 주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012년도부터 시작한 한국의 여성정책 및 사업 발전경험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ODA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음.

〈표 4〉 한국 여성정책 및 사업 발전경험 체계화 세부과제(안)

집필연도	분야	세부과제(안)
2012-2013 11개 주제	정치역량강화	한국여성정치교육훈련사업
	경제역량강화	여성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여성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농촌새마을운동에서 새마을부녀운동의 역할: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중심으로
	인권/권익보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와 법·제도 인프라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 한국여성의전화 설립과 운영사례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2000~2004)과 여성인권증양지원센터(2005~2008) 활동사례
	차별철폐/ 양성평등의식	공무원의 성 인지력 향상교육사업
	교육/인적역량	여성정책 R&D 및 훈련기구 설립: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사례
		대학 내 여성학 육성을 통한 지식생산 및 전문가 양성 사업
인구/보건	가족계획 사업	
2013-2014 9개 주제(안)	정치역량강화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경제역량강화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정책
	인권/권익보호	아동·청소년 성보호 제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운영사례
	성주류화정책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화
		성별 분리통계 구축
교육 및 인적자원	여학생의 진학률 제고 및 여성인력 양성	
	여성과학기술 및 ICT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2014-2015 8개 주제(안)	경제역량강화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교육 및 인적자원	남녀평등한 교육환경 구축 및 여학생 지원강화
	성주류화정책	성인지예산
	보건/복지	여성의 사회보장권 확대 및 여성 빈곤 퇴치
건강 증진대책 강화		

집필연도	분야	세부과제(안)
	차별철폐/ 양성평등 의식	호주제 폐지 여성단체활동 등 NGO 지원
	가족 및 아동	취약계층 아동보호 프로그램

- 협력국가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젠더분야 ODA 사업 수요를 반영한 개발사업의 발굴
 -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1차 협력대상국인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2차 협력대상국인 미얀마와 베트남의 여성정책 전문가들에게 젠더분야 사업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수렴하였으며, 이러한 주제별 사업제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국가별 젠더분야 ODA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음.

〈표 5〉 미얀마·베트남의 여성대상 ODA 사업제안서

분야	국가	사업제안서 주제
정치	미 얀 마	·소수민족 여성의 정치적 역량구축 사업
		·미얀마 시민사회의 양성평등 및 젠더정의 사업
		·여성정치역량강화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 사업
	베 트 남	·평등한 베트남을 위한 공적 리더십 강화 사업
		·국가운영에 있어서 여성리더 증가를 위한 사업
		·양성평등 관련 법·정책 계획 및 이행의 개선을 위한 성인지예산 역량 강화 사업
경제	미 얀 마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
		·은퇴연령의 양성평등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
	베 트 남	·도시지역 비공식부문 도농이주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의 토지사용권 및 경제적 역량강화에 대한 대중 인식 증진 사업
		·베트남 가사노동자 관련 법적 보호 정책

교육	미얀마	·교육분야 이해관계자를 위한 양성평등 인식 증진 및 성주류화 사업
	베트남	-
인권	미얀마	·여성폭력 범죄 감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인식제고 및 사법접근권 개선 사업 ·지역정부의 양성평등정책 형성 사업
	베트남	·도시지역 청소년 데이트에서의 젠더기반 폭력 예방사업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사업
		·베트남 내 젠더기반 폭력의 개념 명확화 및 해결사업
		·여성폭력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역량구축 사업
·가정폭력 예방 관련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보건	미얀마	·HIV/AIDS 법·정책 개혁 검토에 대한 인권 사업 ·여성친화 보건센터 설립 사업
	베트남	·여성보건 역량강화 프로그램: 국가 역량구축 및 여성보건 역량강화

〈표 6〉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여성대상 ODA 사업제안서

분야	국가	ODA 사업 제안서 주제 (2011-2012)
정치	캄보디아	·여성 정치인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증진 및 세력화를 위한 방안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방법과 활용방안 ·국회 여성의원 진출 및 역량강화 사업 ·지방의회 여성의원 역량강화 사업
	인도네시아	·의회 및 지역구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의 증진 ·한국의 공직선거법 발전과정과 선거풍토 변화 ·총선여성연대 및 시민연대 활동을 통한 선거문화 개선 ·2014 총선거 대비 여성후보 진출을 위한 캠페인 전략 수립 워크숍
경제	캄보디아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 ·민관협력을 통한 취업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제시

분야	국가	ODA 사업 제안서 주제 (2011-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개발센터(WDC)의 지속적 활용방안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직업능력센터 사업 ·여성 취업 지원 및 취업여성 역량강화 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캄보디아 여성부 조직역량강화 사업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교육과 ICT연수를 통한 농촌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여성 SME 창업/경영인 지원 사업 ·성인지적 인프라사업 모델개발 사업
인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피해자에게 대한 한국의 원스탑(one-stop)서비스 모델 적용사업 ·성폭력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실행도구로서 미디어 모니터링 방법과 활용방안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 공동실시 ·한국여성운동과 정부·의회의 굿 거버넌스 사례 및 전략탐색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지방법집행관/정부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인지적 법 집행 강화 사업

● 여성가족부·KOICA를 주축으로 한 고위급 정책협의회(Gender Summit) 운영

- 본 사업을 통해 협력관계를 맺은 아태지역 개도국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과 한국 정부를 직접 연결하여 여성 관련 개발의제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급 정책협의회(Gender Summit)의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대상 및 성주류화 ODA 사업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성주류화 및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음.

제안2) 개도국과의 네트워크 축적과 활용

- 아태지역 4개 협력대상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정부, NGO 여성정책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역시 향후 여성정책 분야 ODA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음. 3차년도까지의 연구사업을 통해 축적된 현지 여성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련된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을 바탕으로 한

국정부와 개도국 정부 및 NGO 전문가들,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여성정책 발전과 우리나라 ODA의 성인지적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KWDI의 역할

4 기대효과

- 성인지성 제고 및 성주류화를 통한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선진화
 - KOICA 사업을 비롯해 한국과 아태지역 주요 협력국 간 여성 및 젠더분야 협력의 증가
 - 한국 여성정책 발전 경험 상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의 컨설팅
 -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 남)의 현지 여성정책 수요를 반영한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 아태지역 협력대상 개도국의 여성정책 제도기반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제고
 - 워크숍, 정책자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 한국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현지 여성정책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 현지 여성정책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여성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참고자료



김은경·이수연·장은하·김정수·곽서희·박연선(2013).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II):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외교부 개발협력국,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